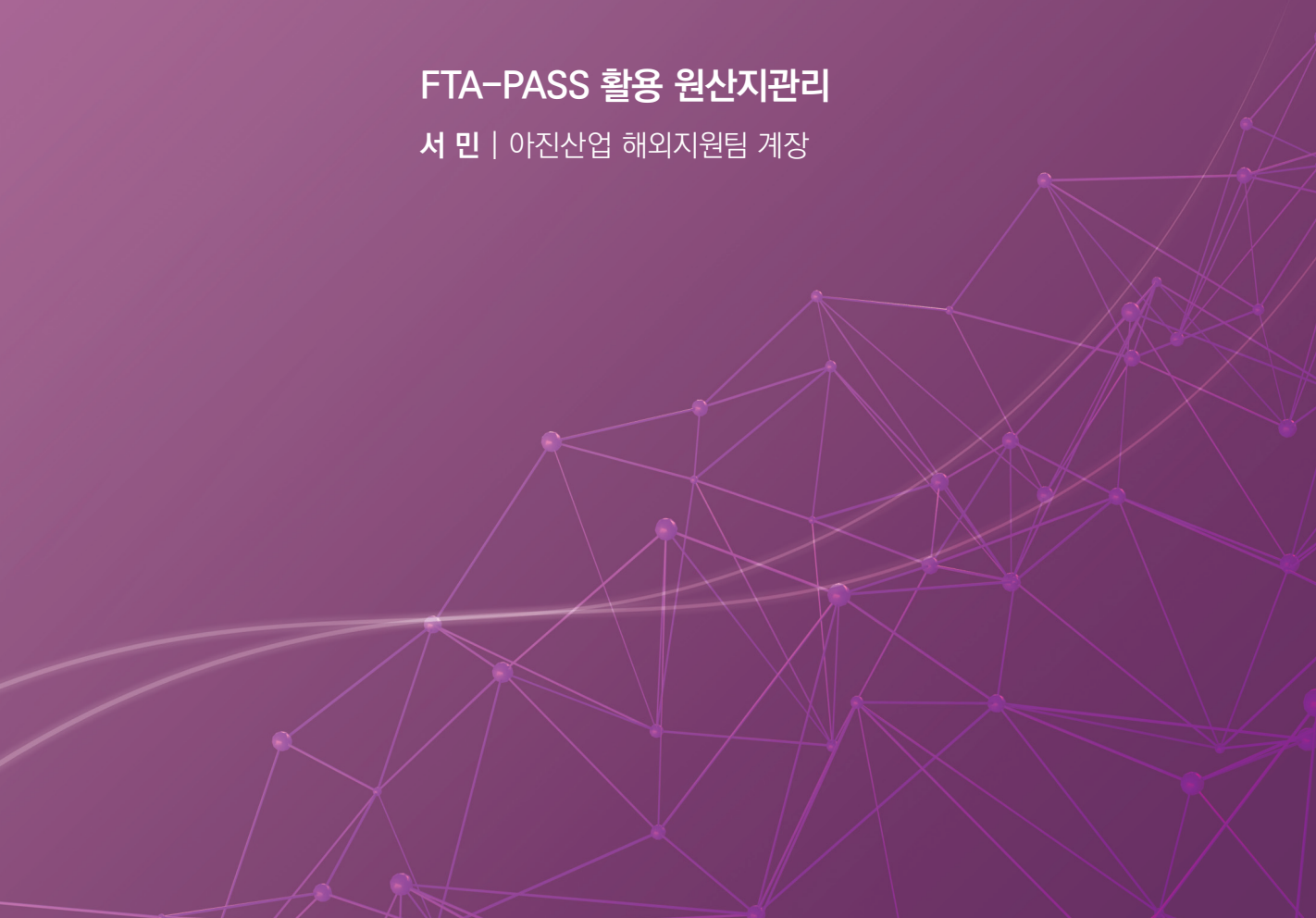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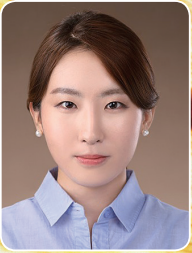
원산지관리, 현장의 목소리

FTA-PASS 활용 원산지관리

서민 | 아진산업 해외지원팀 계장



FTA-PASS 활용 원산지관리



서민

아진산업 해외지원팀 계장

FTA 원산지관리 업무의 정부 지원정책이 영세·중소기업의 눈높이에 맞춰 시행되고 대기업에서도 협력사의 FTA를 장려할 수 있는 지원제도가 좀 더 활성화 되었으면 한다.

또한 아진산업의 FTA 원산지 관리 활용사례가 많은 수출기업으로 확산되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으면 바램이다.

아진산업 소개

경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아진산업은 자동차 차체를 제조하여 국내·외로 판매 및 수출하며 동종업계 세계 1위를 목표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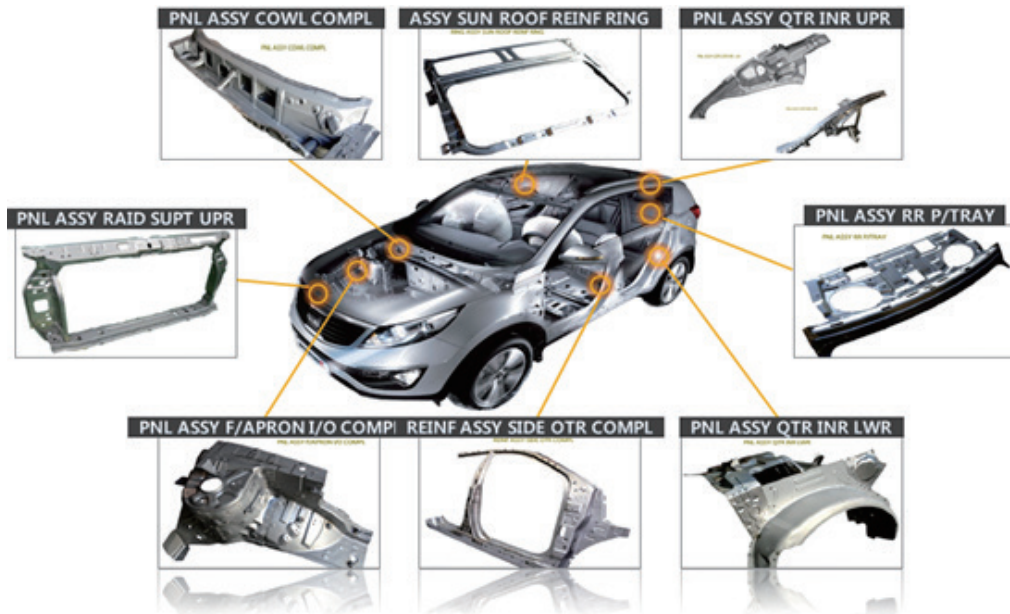
1978년	5월	아진산업(주) 설립
1987년	3월	(주)우신산업 설립
2006년	12월	경북중소기업대상 종합대상 수상(경북도지사)
		아진실업 유한공사 설립(중국상해)
2008년	2월	AJIN USA 미국 현지법인 설립
2009년	7월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선정(노사발전재단)
	9월	생산성향상/혁신활동 우수기업 선정(지식경제부 장관)
2010년	9월	국가생산성대상 국무총리 표창(지식경제부)
2011년	7월	WOOSHIN USA 미국 현지법인 설립
2012년	12월	무역의 날 1억불 수출의 탑 수상
2014년	4월	아진산업(주) 업체별 인증수출자 인증 획득
	8월	(주)우신산업 업체별 인증수출자 인증 획득
	11월	AEO BP(Best Practice : 우수사례) 경진대회 금상 수상
	12월	(주)아진카인텍 업체별 인증수출자 인증 획득
2015년	10월	FTA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수상(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2월	아진산업(주) 코스닥 상장
2017년	12월	제54회 무역의 날 대통령 표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수상
2018년	5월	대구본부세관 FTA 원산지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FTA 활용

아진산업은 자동차 부품과 부품 생산에 필요한 금형, 조립설비를 중국 및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원산지관리를 자동차 부품에 국한시키지 않고 조립설비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원산지관리의 사각 지대를 해소할 수 있으며 또한 새로운 FTA 협정 발효, 국가별 FTA 비준 변화에 대비하여 항상 준비하고 있다.

〈자동차 차체부품〉



국내외로 판매 및 수출되는 자동차 부품은 제품과 상품으로 구분된다. 제품은 자사 생산라인에서 생산되는 품목으로 원자재 입고, 제조·가공, 완제품 생산, 출하까지의 모든 일련의 정보가 원산지판정에 필요한 항목이다. 한편 상품 또는 중간재의 경우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사의 원산지관리 능력 보유가 매우 중요하다.

FTA 원산지관리에 필요한 항목들은 유관 부서에서 ERP(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FTA 업무를 위한 추가업무의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하고, 원산지정보를 FTA 시스템의 엑셀양식에 맞춰 수기로 작성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정보누락 또는 오류발생의 위험성을 줄이고자 2012년부터 FTA-PASS 시스템과 아진산업의

〈아진산업 협력사 방문 점검 및 교육〉



ERP시스템 연계모듈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ERP 시스템의 전송 버튼 한번의 클릭을 통해 FTA-PASS 시스템으로 자료를 자동 전송함으로써 업무시간 절감 및 원산지정보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2012년 당사의 FTA 업무 구축 당시 수기 원산지판정 중이던 당사의 협력사도 별도 투자비용 없이 함께 FTA PASS 시스템 구축을 시작하여 현재 기준 당사 협력사 약 90개사 모두 FTA PASS 시스템을 통하여 원산지관리 중에 있다. 협력사는 당사뿐만 아니라 다른 고객사에도 FTA 업무를 효율적으로 대응 할 수 있게 되었고, 원산지관리 전담자가 바뀌더라도 기존 정보 손실 위험이 없어 매우 효율적으로 관리 하고 있다.

그리고 협력사의 FTA 업무 부진 주요 문제점인 인력부족, 업체 내부지원 부족, 업무대응 능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당사에서는 관세청 무료 사업 및 대구세관, 국제원산지정보원의 전문가를 통한 연 3회 집체 교육(이론/실무)을 실시하여 원산지관리 전담자의 부족한 역량을 강화시키고 연 2회 이상 협력사를 직접 방문하여 원산지 관리체제를 진단하고 담당자 1:1 교육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원산지 사전 확인제도 활용 등을 통하여 협력사 자체 FTA 업무 대응 능력을 꾸준히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아진산업 협력사 집체교육 사진〉



설비

해외공장 투자확대 및 신규 해외법인의 설립으로 신차종의 설비 수출이 대폭 증가하였지만, 초창기 설비의 FTA 활용률은 기존 자동차 부품의 활용률에 비해 많이 저조하여 조립설비 원산지관리는 아진산업 성장의 중요한 요소로 대두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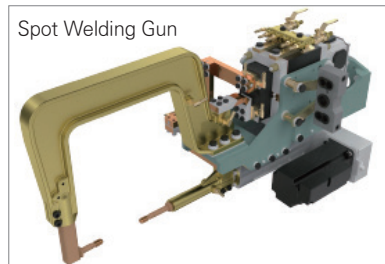
첫번째, 수출 조립설비의 역내산 요건 충족을 위하여 기존 수입 완제품 구매 프로세스를 국내 업체로부터 KNOCK-DOWN된 구성품을 별도 구매 후 조립·수출하는 방식으로 프로세스를 변경하였다.

두번째, 단발성 거래업체 증가와 초기 낮은 FTA 업무를 두려워하는 설비 협력사 담당자들의

문제해결을 위해 기존 활용 중이던 자동차 부품과 마찬가지로 협력사 원산지확인서 및 관련 소명자료 작성 업무지원과 FTA 원산지 이론 및 FTA PASS 시스템을 활용한 실무 교육을 실시하여 신뢰성이 확보된 FTA 원산지확인서 및 관련 소명자료를 수취하게 되었으며, 수출되는 모든 설비에 대해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

2014년 16%에 불과하던 FTA 활용률은 100%로 상승하여 금년도에도 중국과 미국으로 수출중인 부품의 관세 및 미국의 경우 MPF비용까지 절감중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세 절감이 예상된다.

〈아진산업 현장과 설비〉





■ HS CODE 품목분류

아진산업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약 300여건의 부품 및 설비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을 통한 결정문을 보유하고 있다. 당사의 협력사 또한 생산하는 주요 부품의 대표 HS CODE에 대한 증빙으로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하여 결정문을 수취 및 보유하고 있다.

관세청에서 무료로 제공(단, 시험분석필요시 3만원)하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진행을 통한 신뢰성 있는 다양한 품목분류 근거자료를 확보하여 상대국 세관 검증 요청시 품목분류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다. 이는 또한 당사 AEO인 AAA등급 유지와 법규준수도 상승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 협력사 CEO, FTA 전담자의 인식개선

협력사의 CEO와 FTA 전담자 분들이 FTA 업무의 과중한 업무 대비 미미한 효과와 보상에 부담을 느꼈었으나, 당사에서 실시하는 집체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참석하여 관세청과 국제원산지 정보원으로부터 FTA 동향 등 다양한 최신 정보 및 교육 제공을 받아 FTA 원산지관리는 리스크가 아닌 업체를 성장시키는 경쟁력이라고 인식을 바꾸게 되었다.

시사점

FTA는 현재 우리나라 무역에서 70%이상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직수출이 없는 제조업체라 하더라도 FTA 원산지관리 업무는 피할 수 없다. 직수출이 있는 대기업과는 다르게 대기업의 협력사 또는 중소기업에서는 늘어나는 FTA 체결국에 비하여 FTA 발생 효과에 대한 체감률은 매우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정책이 영세·중소기업의 눈높이에 맞춰 시행되고 대기업에서도 협력사의 FTA를 장려할 수 있는 지원제도가 좀 더 활성화 되었으면 한다.

끝으로 아진산업의 FTA 원산지관리 활용사례가 많은 수출기업으로 확산되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조금 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으면 바램이다.